116 2d set

소년단

3 - JUL 28
Copy ______ 1960

1957. 2

조국을 위하여

홍 종원 그림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희망, 나의 생명,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희망 고귀한 생명 큰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이렇게 리 수복 영웅은 돌격전을 앞두고 자기 일기장에 썼다.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소년단 1957년 제2호 내용

민청 모범 기'발을 휘날리며

지난 해 11월 5일입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4차 대회를 축하하여 드린 조선 인민군 축하단의 유화 《민청 모범 기'발》은 민청 대표 형님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동부 전선의 중요 고지인 339 고지 전투에서 민청 초급 단체 위원장 신 중순 영웅 형님을 비롯한 젊은 전투원들이 전우들의 피로써 물젖은 민청 모범 기'발을 휘날리면서 끝끝내 고지를 탈환한 영웅적 투쟁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과 그때 휘날리던 민청 모범 기'발은 다시금 인민 군대 형님들의 투쟁 모습을 회상케 했습니다.

(1) 1953년 7월이였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 형님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거듭 참패를 당한 원쑤놈들은 339 고지 우에서 눈 먼 포사격을 쉴새 없이 해 왔습니다.

《한 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넘겨 주지 말자!》라고 굳게 다진 신 중순 형님네 중대는 어느 날 339 고지 습격 전투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대 별로 갖은 난관을 뚫고 적진 가까운 《푸른 언덕》에까지 이른 중대는 새로운 전투 준비를 앞두고 인원을 조사하게 되였습니다. 모두 설흔 세명! 행군에서 귀중한 전우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원쑤놈들에 대한 복쑤심이 더욱 불같이 솟은 신 중순 형님은 설흔 세명의 전투원이라도 능히 339 고지를 습격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였습니다.

(2) 지휘관과 숱한 전우들을 잃었으나 형님들은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이였습니다.

형님들은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목 추길 사이 조차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못해 혀가 터지는 것 같을 때였습니다.

김 상춘 형님은 자진해서 전우들을 위하여 원쑤들의 포탄이 쉴새없이 떨어지는 골짜기로 기여 내려 갔습니다.

상춘 형님이 무사히 물을 길어 왔을 때 정치 부중대장의 대리 공작을 맡게 된 신 중순 형님은 전우들을 이렇게 고무했습니다.

《고맙소 전우들은 동무의 피땀이 섞인 이 물을 마시고 용기 백배되여 오늘 밤엔 꼭 저 고지를 빼앗을 것이요》.

(3) 어두워지자 짐작했던 대로 원쑤들은 고지 정면과 좌우측으로부터 반 돌격해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놈들이 7～8m로 가까이 다가 올 때까지 쥐죽은 듯이 잠자코 있다가 일제히 불 벼락을 들씌웠습니다. 원쑤들은 한 놈도 되돌아 서지 못하고 삽시간에 몽땅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지요.

두번째 전투에서도 적 한 개 소대가 수류탄과 따바리 총이 내뿜은 불벼락에 깡그리 쓰러졌습니다.

(4) 스물 두시 정각! 마지막 돌격을 기다리는 전우들에게 신 중순 형님은 가슴에 간직하였던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돌려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근위 부대의 영예를 고수하여 전우들의 피로 물든 공화국기와 민청 중앙 위원회 모범 기'발을 339 고지 산 마루에 휘날릴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5) 기다리던 돌격이 시작 되였습니다. 발악하는 원쑤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형님들의 자동총 소리, 헤아릴 수 없이 터지는 수류탄 소리며 우렁찬 만세 소리로 고지는 순식간에 불바다에 잠겼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는 적 중기를 향하여 쏜살 같이 내달리던 창학 형님은 《조선 로동당 만세!》를 웨치며 몸으로 적 중기를 막았습니다.

(6) 창학 형님의 뒤를 따라 전우들은 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며 고지로 용감히 내달렸습니다.

적진 5m 앞까지 육박해 갔을때 민청 모범 기'발을 하늘 높이 휘날리며 앞장서 내달린 강 제유 형님이 그만 중상을 당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그는 기'발을 흔들며 《앞으로! 앞으로!》 하고 전우들을 고무하였습니다.

(7) 파편에 찢기고 전우들의 선지피에 얼룩진 민청 모범 기'발을 재빨리 받아 쥔 김 상춘 형님은 기'발을 내흔들며 적들의 참호로 뛰여 들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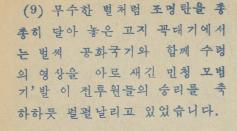
☆ ☆

◇조선 인민군 축하단이 민청 제 4차 대회를 축하하여 드린 유화 《민청 모범 기'발》◇

(8) 참호에서는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우들의 복쑤를 위해 신 중순 형님은 원쑤놈들의 복판에 통쾌한 수류탄 벼락을 들씌우면서 《동무들! 원쑤들은 도망친다. 한 놈도 놓치지 말라》고 웨쳤습니다.

참호 안에서도 밖에서도 도망치는 원쑤놈들에게 복쑤의 불벼락을 퍼붓는 형님들의 요란한 자동총 소리가 적진을 휩싸고 멎을 줄 몰랐습니다.

(9) 무수한 별처럼 조명탄을 총총히 달아 놓은 고지 꼭대기에서는 벌써 공화국기와 함께 수령의 영상을 아로 새긴 민청 모범 기'발이 전투원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펄펄날리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의 승리의 만세! 소리는 고지를 뒤 흔들었습니다.

신 중순 형님은 부상 당하여 신음하던 아픔도 잊고 얼굴에 빙그레 미소를 띄웠습니다. 전우들의 피로써 물젖은 민청 모범 기'발과 함께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운 기쁨의 미소였습니다.

★☆★☆★☆★☆★☆★☆★☆★☆★☆★☆★☆★☆★☆★☆★☆★☆★☆★☆★☆

우리학교대의 자랑

두개의우승기와75매의상장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춤추기를 좋아하며 노래 부르기를 퍽 즐깁니다. 대에서 때때로 가지는 분단 별 연예 발표회 때면 많은 동무들이 누구나 무대에 올라 춤 추며 노래 부릅니다.

학교 대에서는 모두다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하여 분단 별 연예 발표회를 자주 가지고 더 많은 동무들이 출연한 분단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분단에서 우수한 동무들을 뽑아 학교 대 연예대를 500명으로 조직했습니다.

◇ 무용 〈우리 길은 하나다〉 ◇

합창부에서는 약 50 곡목의 노래를 2부 3부로 합창하고 있으며 무용부 동무들은 군무 《우리 길은 하나다》 《산속의 이야기》 《꼬마 토끼》 《앵두 따기》 《8월의 기쁨》 《5점짜리 이야기》 등 40 종목의 군무와 《슬기 있는 남매》를 비롯한 8 종목의 무용극을 훌륭히 춤 춥니다.

◇ 곡예 ◇

동극부 동무들의 가극 《개미네 동네》 《다시 찾은 피리》 스켓취 《영웅을 따르는 소년들》 《꽃 대문》등은 도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중에서도 《다시 찾은 피리》는 작년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예술 축전에서 2등의 영예를 쟁취했답니다.

이리하여 우리 학교 대에는 두개의 우승기와 75매의 상장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량강도 혜산 제3 중학교 대
리 경 희

곡산 공장에서의 하루

곡산 공장의 높은 굴뚝에서 솟는 연기는 대동강반을 따라 하늘 높이 사라진다. 공장 뜰에 들어서자 기계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우리들의 구미를 돋구며 풍겨온다.

《질 좋고 값싼 식료품을 인민들에게!》라는 표어가 눈에 띄우는 곳마다에 보기 좋게 걸렸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미국놈들은 이 공장을 모조리 마사 버렸다. 그러나 전후에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이 공장을 하루 속히 복구하도록 배려를 돌렸다.

지난해 8월부터 식료품을 생산하기까지에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로력 투쟁이 컸었다.

올해에 이 공장은 세배로 더 확장되였다.

지금 이 공장 로동자 아저씨, 언니, 누나들은 인민들이 더욱 즐길 수 있는 식료품 생산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 계획을 120%로 넘쳐 하고 있다.

하루에 150톤의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다는 이 공장의 제품은 실로 많다.

☆ 쌓이고 또 쌓인다 ☆

조분체 직장에 들어서면 눈처럼 하얀 가루가 쌓이군 한다.

로동자들은 하루에 45톤 이상의 가루를 뽑기 위하여 주의깊게 기계들을 보살피며 운전한다.

삽시간에 산'더미를 이루는 이 옥수수 가루로 우리들이 즐기는 가지가지의 식료품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가루를 외국에 한 톤 가져 가면 세 톤의 쌀을 바꿔 오게 된다.

☆ 줄줄 흐른다 ☆

옥수수 눈 (배아)에서 기름을 짠다고 하면 누구나 잘 믿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곡산 공장에서는 옥수수 눈에서 맛나는 기름을 짜며 찝질로는가축들을 살찌게 하는 사료를 만든다.

하루에 3 톤이상을 짜내는 기름은 수도 물 처럼 줄줄 흘러 어느덧 통에 출출 넘군 한다.

☆ 물'엿은 또 포도당이 된다 ☆

옥수수에서 맛 좋은 물'엿이 만들어진다. 쉴새 없이 만들어지는 물'엿은 다시 눈 송이 같은 포도당이 된다. 빙빙 도는 기계를 돌보고 난 김 화순 아저씨는 탐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포도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나도 한때는 농사를 지었소만 옥수수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은 여기 와서 일하면서야 알았수다》.

☆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과자를 ☆

☆⋯☆ 탕 ☆⋯☆ 화 직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군침을 삼키게 된다.

기계로 반죽한 원료를 곱게 썰어서 구워낸 과자는 저울에 달리워 네모난 곽 속에 들어 간다.

원료를 아끼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손을 재는 로동자 언니들은 날마다 자기 계획을 125%로 넘쳐 하여 올해에는 300 톤의 과자를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보내 주겠다고 한다.

물'엿으로 만든 도롭프스는 별 맛이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도롭프스를 더 만들어 내게 된다.

☆ 옥수수는 밭 곡식의 왕이다 ☆

☆⋯☆ 이 ☆⋯☆ 공장에서는 옥수수 가루로 마른 국수도 만든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맛있는 옥수수 국수와 빵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비스켓트와 각사탕(포도당으로 만든 것)도 앞으로 만들어져 지난 해보다 3배의 사탕들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공장에서는 옥수수로 인조 빠다, 비누, 기계 기름, 물'감, 간장, 알콜, 단추, 약품들도 만들게 된다.

밥과 떡, 이외에도 우리들에게 영양'가 많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옥수수는 참말 밭곡식의 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할 것을 약속해 주는 곡산 공장은 실로 우리 나라의 보배이며 자랑이다.

사진: 김 창 규
글: 박 정 렬

동시

해'님도 좋아라, 흘러 드는
맑고 깨끗한 새 교실에서
먼 초소에 계신 오빠의 사진 한장
나는 동무들에게 보여 준다.

따바리 총 둘러 메고
군기 앞에 앉은 오빠의 모습
떡 벌린 넓은 가슴엔
가지가지 꽃처럼 훈장을 달았다.

—야, 순희 오빠 참 훌륭하구나,
동무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오
르며
제 손에 들고 먼저 보겠다고
서로 서로 앞을 다룬다.

맑은 빛 도는 두 눈.
한일자로 굳게 다문 입
술,
또릿또릿 밝아 오르는
모자에 단 인민군대 별!

얄미운 원쑤와 싸우던
날엔
미국놈 땅크 다섯 대 불
태운 오빠
오늘은 따바리 총 틀어
쥐고
초소를 지키여 선 나의 오빠.

—무슨 훈장일가,
저마다 옳다고 알아 맞히며
동무들은 좋아라 입을 못다물고
내 어깨도 저절로 올라 가는데

사진 속의 오빠도 반갑게 웃
으며
날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순희야! 배우고 또 배우라,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답게!

우리 학교의 실습지, 이것은 우리들의 훌륭한 자연 교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500평의 교재원과 선진 영농법을 배우기 위한 500평의 실습지를 가꾸면서 훌륭한 경험들과 새로운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 땅이 풀리기 전부터 온실에서 종자의 발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김 태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온실 밑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우에 흙을 덮은 다음 거기에 종자를 100알씩 심었습니다. 그것을 실내 온도 20~30도에서 싹틔운 다음 싹튼 종자의 수를 조사하여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를 갈라 내였습니다. 이런 발아 실험은 좋은 종자를 심어 수확을 많이 거두는데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습지에서는 무우의 잎을 하나는 묶어 두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두었다가 수확의 차이를 실험해 보았는데 잎을 제대로 둔 무우는 보통 500g나 되였고 잎을 묶어 둔 것은 겨우 200g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무우나 감자와 같은 식물의 잎은 광선을 받아 탄소 동화 작용을 진행하고 전분을 만들어 뿌리에 저장한다는 것을 똑똑히 리해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영양 번식에 대한 실험도 하였습니다. 식물의 영양 번식에 대한 실험에서는 40g의 무게를 가진 마령서 알을 2분지 1로 쪼개서 심은 것과 통감자 대로 심은 것을 대비해 보았는 데 통감자 대로 심은 것이 빨리 자랐을 뿐만 아니라 수확도 한 평에서 1k 200g나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양이 많은 종자가 적은 것에 비하여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짧은 줄기 (민들레, 길장구)와 기는 줄기 (양딸기, 호감자) 기여 오르는 줄기 (호박, 오이)와 감기는 줄기 (메꽃, 라팔 꽃) 등에 대한 관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실습지에서 우리는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재배 방법을 하나 하나 배워 나갈 대신에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관찰 실험하며 실습했기 때문에 실지 농작물 재배에서 씨앗을 고르는 일부터 가꾸어서 거두어 들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지난 해의 경험을 살리여 1,200평의 생산 실습 포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알곡과 공예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 실습 포전에 우리는 옥수수와 밀, 보리 그리고 대마, 아마, 피마주 등 21 종의 알곡 및 공예 작물들과 무우, 배추 등 13 종의 채소류를 심고 실지 선진 영농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 생산 실습 포전에는 약 70평 정도로 크루쇼크원들의 실습장을 따로 마련하고 거기에서 400개의 화분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곡식들을 서로 다른 토양에다 심어 놓고 곡식의 순차적 발육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며 서로 다른 토양에서 자라나는 곡식들이 각각 요구하는 비료, 온도, 수분 관계들을 실험하면서 그 경험들을 직접 실습 포전을 가꾸는 전체 동무들에게 알려 주기로 되였습니다.

실습지를 위하여 우리는 올해에 더욱 큰 온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가지, 오이, 호박을 비롯한 가지가지 채소류들의 모를 키워내고 그 모들을 실습 포전에 정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벌써 온상에 덮을 유리문과 짚나래들을 마련하였고 퇴비와 우마분도 충분히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제 3월 초순만 되면 온상에 가지, 오이, 호박들을 심게 되며 4월 초순에는 가식장에, 4월 중순부터는 실습 포전에 정식될 것입니다. 한편 벼의 랭상모와 륙상모도 붓기로 하였습니다.

유지 작물

피마주

피마주는 유지 작물 중에서도 기름 성분이 많은 중요한 작물의 하나입니다.

피마주 씨 100g에서는 40~50g의 기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피마주 기름은 주로 비행기 발동기와 정밀 기계에 사용되고 기타 고급 비누의 제조와 고무 제품의 생산, 물'감 제조들에도 사용되며 약으로도 리용됩니다.

피마주는 한 대에서 보통 400g의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화국 전체 소년들이 한 사람이 피마주 한 대씩만 심고 가꾼다면 72 만톤의 피마주 씨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기름을 짠다면 적어도 30만톤 이상의 피마주 기름을 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대와 대, 분단과 분단, 반과 반 사이에 서로 경쟁하여 집 울타리나 밭 머리 길섶 등 공터들에 피마주를 많이 심어 나라에 도움을 줍시다.

이 밖에 올해에 우리가 생산 실습 포전에서 진행할 실험 계획으로는 호박, 오이, 수박 등 충매화 식물 (나비나 벌들에 의하여 수분 작용이 진행되는 식물)들을 비롯하여 옥수수와 기타 식물들에 대한

유지작물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국화'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인데 8~9월경에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해바라기는 꽃으로 보기에도 좋으나 그 씨에서는 기름을 짜내는 중요한 유지 작물의 하나입니다.

해바라기의 기름은 음식 맛을 돋구는데도 쓰지만 비누의 제조와 도료의 제조 등 여러가지 공업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해바라기는 한 대에서 보통 800g의 씨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공화국 전체 소년들이 한 사람이 한 대씩만 심는다면 144 만톤의 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에는 학교 정원과 집 뜰에서 해바라기를 더욱 많이 심어 가꿉시다.

어느 분단 어느 반 누가 더 많이 가꾸는가 경쟁하여 봅시다.

인공 수분 실험과 봄에 심는 밀에서도 완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야로비자찌야 실험, 그리고 면화 재배에서 병충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면화 재배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험은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토양은 면화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해마다 병충해 때문에 그의 재배를 잘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올해에 면화 《룡강 3종》을 종자로 선택하여 종자 소독을 실시하고 발아 후에는 때를 보아 가며 호루마링 소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병충해를 면하게 된다면 우리 고향의 면화 재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교재원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울 식물들을 심어 놓고 그의 생활과 습성들을 계속 관찰 연구하게 될 것이며 학교 과수원에서는 과수의 이종 교배와 접목 실험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실습지를 가꾸는 일은 인민반 3학년으로부터 초급반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급 단위로 힘에 맞게 한 개 포전씩 떼여 맡기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동무들이 1년 동안에 적어도 자기 학급 포전에서 가꾸는 식물들에 대해서는 관찰 실험 실습을 통하여 그의 생활 습성과 재배 방법들을 완전히 알도록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인민반 3학년 동무들이 초급반을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10 여종의 곡식들에 대한 지식과 그 재배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계획은 학교 선생님들의 평의회에서 토의되고 지금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평남 온천 제1 중학교

김 창 기

동요

영남이가 쓴 편지

남 응 손

군대 나간 형님의 편지를 받고
영남이는 즐거워 답장을 썼어요.

학교에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안 일도 잘 돕는다 편지 썼어요.

영남이는 3 학년 편지 잘 써요.
제 할 말 자랑을 모두 썼지요.

그러나 영남이논 웬 일인가요.
다 쓴 편지 읽고 나서 눈만 굴려요.

암만 해도 편지가 마음 안들어
읽고읽고 또 읽으니 생각 많아요.

글씨를 잘못 썼나 말이 안됐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1학기 최우등 너무 뽐내다
2학기엔 보통 성적 받은 영남이.

어머니 심부름엔 공부 간다고
핑계대고 거리로 싸댄 영남이.

형님에게 거짓 말 쓸 수는 없어
인민 군대 형님을 어찌 속인담

영남이는 다시 써요 답장을 써요.
새 학기엔 제 잘못을 고치겠다고.

만화

한대 먹어

—남조선《국군》은 이렇다—

옛날 어떤 고을에 한 사또가 있었는데 그는 높은 벼슬 자리를 얻어서 권세를 더 부리고 더 잘 살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들이여서 서울에 사는 대감네 집에 많은 뢰물을 보내였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받아 먹고 좀처럼 높은 벼슬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벼슬 자릴 하나 줄려노?》.

사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뢰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들여서 대감에게 뢰물을 보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또를 《쇠갈퀴》라고 불렀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사또에게 재산을 모조리 빼앗긴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되였습니다. 일생 한 번 밖에 없는 부모들의 환갑 날에도 죽을 쑤어 드려야 할 형편이였습니다.

◇ 사또는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드려서 대감에게 보냈다 ◇

그런데 효섭이네는 죽 쑬 감조차 없었습니다. 효자인 효섭이는 어머니 환갑 날을 앞두고 큰 시름에 잠기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효섭이는 산 나물이라도 캐여다 대접하려고 환갑 전날 산에 올라 갔습니다.

《참 딱하군, 떡은 못 차리더라도 따끈한 밥이야 한 술 대접해야 할게 아닌가?》.

효섭이는 혼자 걱정을 하면서 나무 숲 속으로 걸어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무 우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쌀 열 말에 닭 열 마리면 될 것 가지구 걱정할게 뭐요, 내가 도와 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효섭이는 어떤 장난 꾸러기가 나무 우에 기여 올라가 있다가 자기를 놀리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 밖에도 황금 덩어리 같은 아름다운 새가 나무 가지에 앉아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도와 준단 말이냐?》.

효섭이는 하두 이상해서 황금새에게 물었습니다.

《근심 말고 저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 가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새를 구경하러 오라고 일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저씨를 도와 드릴테야요》.

황금새는 이렇게 말하고 효섭이의 어깨 우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말하는 새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해서 효섭이네 집으로 몰려 왔습니다. 여기에는 벼슬아치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섭의 어깨 우에 얌전히 앉아 있는 황금새를 보고 어서 말을 시켜 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금새는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착하고 착하신 마을 아저씨들, 이 집 어머니 환갑 날이 래일인데 죽 쑬 쌀도 없다지 않아요. 그러니 아들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겠어요. 참 딱한 사정이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인 많은 아저씨들이 조금씩만 도와 준다면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차리여 드릴 수 있을거예요》.

◇ 네가 나를 어떻게 도와 준단 말이냐 ◇

◇ 내가 도와 드릴테니 걱정마세요 ◇

황금새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참 기특한 새로군! 우리가 못 먹더라도 그래야지!》

하고 마을 사람들은 쌀이니 닭이니 할 것 없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 효섭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섭이는 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잘 차려 드리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뜻 밖의 일이 생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방망이를 든 사령들이 효섭이네 집에 달려 들어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습니다.

《사또께서 말하는 새를 가져다 바치라신다》.

사또는 말하는 새가 효섭의 딱한 사정을 풀어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 놈의 새를 대감한테 가지고 가서 자기의 소원도 풀어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새가 네 딱한 사정을 풀어 주었다니 그게 정말이냐?》.

사또는 새를 가지고 온 효섭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럼 그 말을 또 한 번 시켜 봐라》.

《네》.

효섭이는 어깨 우에 앉아 있는 황금새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황금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던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황금새의 말을 들은 사또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리였습니다. 그는 당장 높은 벼슬자리를 얻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효섭이에게서 황금새를 빼앗아 금으로 만든 초롱에 넣으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돼지 같이 잘 처먹는 대감이라도 이번에야 한 자리 주겠지》.

이튿날 사또는 요란한 행차를 갖추고 황금 초롱을 무릎에 얹고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대감 앞에 나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대감님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을 드리려고 올라 왔습니다》.

《응 그래 그게 뭔고?》.

대감은 귀가 솔깃해서 물었습니다.

《말하는 새올시다》.

《말하는 새라, 어디 보자》.

대감도 아름다운 황금새를 보고 놀랐습니다.

《흥 훌륭한 새로군, 그래 어서 말을 시켜 보게》.

《네》.

사또는 이번에야 무슨 수가 생기는가보다 하고 생각하여 초롱 속에 있는 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서 대감님께 말씀을 여쭈어라》.

그러나 황금새는 보통 새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얼굴 빛은 차차 흐려졌습니다.

《이 놈, 누구 앞이라고 그런 거짓 말을 함부로 하느냐》.

《아니올시다》.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정말이올시다. 이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 시키느냐》.

대감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였습니다.

《네 저 황송한 말씀이오나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초롱에 갇히여 있지 않고 사람의

◇ 대감은 큰소리로 호령했다 《저놈을 죽도록 쳐라》 ◇

어깨 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초롱 속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말을 못하는가 아뢰옵니다》.

《어떻게 하던 시켜 보라》.

《네》.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초롱에서 새를 꺼내여 자기 어깨에 얹고 말하였습니다.

《어서 여쭈어라》.

그러자 황금새는 하늘로 날아 올라 가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돼지 같이 잘 처먹는 대감이라도 이번에야 한 자리 주겠지 하고 이 사또가 말합디다》.

《뭐?》.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너무도 성이 나고 기가 막혀서 눈을 뒤집고 입에 더품을 물고 한참 동안 손만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대감은

◇ 저 놈을 죽도록 쳐라 ◇

죽은 사람처럼 얼굴 빛이 파래서 땅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사또를 가리키며

《저 놈을 쳐라》

하고 호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손에 몽둥이들을 쥔 라졸들이 달려 들어 사또를 막 쳤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요》. 사또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더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저놈을 죽도록 쳐라》.

그러자 하늘에서도

《저놈을 죽도록 쳐라》.

하는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그것은 푸른 하늘로 날개치며 날아 가는 황금새가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며

판문군 월정 중학교 1학년 문 양자

앓아 누워 계신 할머니의 머리 맡에서 울며 불며 하다 깊이 잠들었던 나는 감격과 환호에 넘친 우렁찬 만세 소리에 깨여났다.

북으로 쳐들어 간다고 호통치며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국군》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북으로 쳐들어 가다가 인민 군대한테 쫓겨간 것이였다.

언제 달았는지 공화국 기'발이며 프랑카드들이 거리거리에 나붓기고 있었다. 인민들은 오래 헤여졌던 식구들을 맞는 것처럼 반가와 한다. 아이들도 벌써 낯익어져 인민 군대의 품에 안기여 만세, 만세를 부른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성큼 그러지 못했다. 나의 머리에 못 박힌 얼마 전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굶주려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도 앓아 눕게 된 때였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약 써 드리려고 이웃에 사정하여 구해 온 암탉 한 마리를 《국군》이 빼앗아 간 것이였다. 《이 집은 그래, 당신네 백성들을 위해 고생하는 <국군>을 생각지 않는가?》 이렇게 호통치면서 할머니를 발'길로 차며 붙안고 놓지 않는 암탉을 목 비틀어 가져 갔다. 그 악마의 짓을 잊을 수 없다.

이런 것만을 보아 온 나는 총 멘 사람을 멀찌감치에서 보아도 피했다.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 잡이였다.

한 인민 군대 아저씨는 그의 곁에 있는 나를 보자 성큼 안아 주었다.

《왜 눈이 퉁퉁 부었니? 이 기쁜 날에…》. 그리고 나더러 집이 어딘가고 물었다. 그 아저씨는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를 만났고 군의를 데려다 치료해 주었다. 할머니는 곧 나았다. 지금 할머니는 양로원에 가서 평안히 지내고 나는 리 당 위원장 아저씨의 집에서 중학교에 다닌다. 나는 행복하다. 이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인민 군대 아저씨를 생각한다. 지금 생각을 더듬으면 군관인 것 같다. 그런데 이름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감사의 편지를 쓴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모두 같은 우리의 아저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하였다

글: 윤 장섭 그림: 림 영환

일제놈들은 로동자들의 임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1930년에 부산 방직 공장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때 이 공장에는 녀성 로동자들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12—13세 밖에 안되는 어린 로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인 자본가들이 임금은 적게 주고도 일은 많이 시켜 먹을 욕심으로 일부러 소년 소녀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본가는 이들을 감옥 같은 더러운 기숙사에 몰아 넣고는 마음 대로 착취를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제놈들은 새해에 들어서자 마자 뻔뻔스럽게도 로동자들의 임금을 락없이 더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놈들은 로동자들의 집들을 모조리 뒤졌다.

이 결정은 불평 불만에 가득 찬 로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00여명이나 되는 이 공장 로동자들은 즉시로 임금 인하를 반대하는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장의 전체 소년 소녀 로동자들도 한 사람의 락오자가 없이 혹은 련락원으로서 혹은 적의 동정을 살피는 정찰원으로서 밤잠도 잊고 싸웠습니다.

로동자들의 파업에 놀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파업 로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경상 남도 경찰부와 부산 경찰서 순사들을 모조리 동원했고 그들의 앞잡이들인 《재향 군인회》 《청년단》 심지어는 《소방대》까지 끌어내 가지고 로동자들에게 덤벼 들었습니다.

파업을 깨뜨리는데 소년공들을 리용해 보려고 애썼다

놈들은 파업을 지도하는 로동자들을 체포하려고 눈이 벌개서 로동자의 집들을 모조리 뒤지였습니다. 또 순사놈들은 공장 안에 있는 주로 어린 녀공들을 총 칼로 기숙사에 몰아 넣고는 파업하고 거리로 나간 로동자들과 련락을 못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기숙사를 에워 쌌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파업을 깨뜨리는데 소년공들을 리용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찾아 왔는데 네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면회를 시켜 줄 수 없다》. 《파업 지도자를 고발해 주면 너에게 많은 임금을 올려 주마》. 이렇게 울려 보기도 하고 얼리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수틀리면 총'가목으로 후려 갈겼습니다.

자본가들이 굴복할 때까지 밥도 물도 먹지 않는 단식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일제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도리여 강화되여만 갔습니다. 기숙사에 갇히운 녀공들은 경찰놈들의 포위망 속에서도 회의를 가지고 자본가들이 굴복할 때까지 밥도 물도 먹지 않는 단식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들은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은 더욱 굳어집니다. 그들은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늘이 울리도록 혁명가를 합창했으며 《임금을 인상해라》,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라》 하고 구호를 소리 높이 웨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제놈들은

지랄을 쳤지만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이라도 총탁으로 때린다면 쇠약해진 그들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공장 밖에 있는 로동자들은 가두 시위를 단행했다.

그러나 어린 소년공들은 자기들을 총칼로 포위한 경찰대를 향해서 맨 주먹으로 정면 공격을 하군 했습니다. 경관들은 소녀들을 칼 자루로 때리고 총탁으로 깝니다. 그러나 악에 바친 소녀들은 물고 차면서 그들에게 달려 들군 합니다.

공장 밖에 있는 로동자들은 또 그들대로 일제를 반대하는 구호를 부르면서 가두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가두에서도 시위 대렬과 경관대 간의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공장 속 기숙사에서, 가두에서, 그들의 투쟁은 치렬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부산 방직 공장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악에 바친 소년들은 물고 차면서 경관들에게 달려 들군 했다.

전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그들의 투쟁을 성원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렸습니다. 파업 로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원호금이 각처에서 모여 들어 옵니다. 함흥 로동자들은 그들을 성원하는 동정 파업을 1일간 단행했습니다. 각처의 로동자들이 이 파업을 지지해서 들고 일어 났습니다.

농민들도 나섰습니다. 그들도 쌀을 가져 온다, 돈을 가져 온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파업 로동자들을 성원했습니다.

일본인 로동자들도 조선 로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해서 같이 파업에 들어 섰다

부산 방직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일본 사람 로동자들도 조선 로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해서 같이 파업에 들어섰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원쑤는 다름 아닌 일본 자본가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라는 구호를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도 이 노도 같은 성원들에서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투쟁이 일제를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 조선의 로동자, 농민, 량심 있는 인테리들이 자기들을 성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산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충청 남도 천안에서 농민들이 쌀 가마니를 가지고 달려 오고 바다'가의 어민들이 생선을 지고 달려 왔다는 소식은 기숙사에 갇혀서 단식 투쟁을 하는 어린 소녀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뒤끓었습니다.

로동자들의 투지는 더욱 거세여 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일제놈들의 발악도 심해 갔습니다. 일제놈들은 파업을 부시려고 갖은 행패를 다했습니다. 놈들은 소년 소녀이건 어른이건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동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파업은 실패했으나 일제를 증오하고 반대 투쟁하는 로동자들의 투지는 더욱 거세여 가기만 하였습니다.

수채화
《씽씽 달려라》
홍 종원 그림
우리들의 그네지
꾀돌이
원광수 그림
아름다운 내고향
평북 박천 인민 학교
리 용민 그림
만화 흥, 꼴 좋다!
조 명식 그림
—남조선 약탈은 이렇다—
먹을 알 생겼네……1
요놈아 소를 냉큼 내라! 2
흥 꼴 좋다…… 3
우리 말은 아름답다고 가르쳤는데…
(1) 용이— 너 아까 나더러 개새끼라구 그랬지‥?
(2) 용이— 왜 때리니 이 새끼!
(3) 용이— 날 잡으면 용하지
(4) 용이— 좋은 들어 온다
(5) 선생— ? ………
(6) 용이— 이 개새끼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 줄테다
(7) 용이— 아이구 선생님이였구나,
선생— 우리 말은 아름답다고 가르쳤는데……

두 그루의 꽃나무

◇ 리 춘 근 ◇

내가 3분단 교실에 들어 간 것은 이 분단에 재미 있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두 그루의 꽃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가에는 활짝 핀 아름다운 두 그루의 꽃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교실 청소를 끝낸 분단의 몇몇 동무들이 이 꽃들에 물을 주며 서로 재미 있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이 꽃을 절약 꽃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며 벌써 낯 익어진 분단 위원장 김 영무 동무는 나에게 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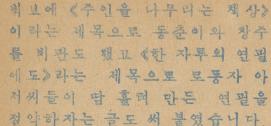
우리 분단에는 학교의 물건을 사랑할 줄 모르며 자기의 학습 도구도 아끼지 않는 몇몇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 동춘 동무와 로 창주 동무는 자기가 쓰는 책상을 칼로 깎고 잉크를 쏟히고 하여 보기 흉하게 만들었답니다. 때로는 책상을 가로 타고 앉아서 말을 탄다고 삐걱거리다 그만 망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뿐이 아니였어요. 리 경화 동무는 어느 날 하루에 연필 한 자루를 다 써 버렸습니다. 그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로 책상을 마구 오리거나 책에 구멍을 뚫으느라고 하다간 연필을 분어뜨리군 했으니까요.

김 계옥 동무는 학습장 한장에 커다란 글씨로 스무나무 자씩 써 버리군 했답니다. 그리고 흰 종이를 쭉쭉 찢어서는 《비행기》니 《배》니 《제비》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 버릇을 고쳐 주려고 우리 분단 동무들은 무척 애를 썼답니다.

처음 우리는 그들에게 소년 신문에 실린 《울고 있는 책상》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벽보에 《주인을 나무라는 책상》이라는 제목으로 동춘이와 창수를 비판도 했고 《한 자루의 연필에도》라는 제목으로 로동자 아저씨들이 땀 흘려 만든 연필을 절약하자는 글도 써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벽보를 보고 섰던 동춘이가 창주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애 저 벽보를 누가 썼는지 알지?》하고 쑤군거리더니 그 이튿날 벽보 주필의 책상과 자기의 책상을 슬쩍 바꾸어 놓기도 했고 《일 없어. 졸업하면 그만이지. 이 책상을 중 학교까지 가지고 가겐》하며 좀체로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경화는 《나 하나 좀 연필을 더 쓴다고 그 많은 연필이 다 없어질가?》하며 동무들의 충고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계옥이는 《아니 글씨를 크게 써야 글씨가 는다는데 뭐, 〈비행기〉랑 〈제비〉랑 만드는 건 공부가 아닌가》 하며 동무들을 나무랬습니다.

평북 박천 인민 학교대 제1 분단 벽보 주필인 리 용민 동무는 어린 미술가랍니다.

용민 동무는 학교의 벽보에 만화도 그리며 아름다운 그림도 그려 동무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앞산에 올라 아름다운 자기 고향, 옛날 (1811년) 홍경래가 량반 계급을 반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한데 모여 무술도 닦고 계책도 꾸민 자랑스러운 곳인 다복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왔어요. 그들을 고쳐 줄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김 길녀 동무가 《얘들아 우리 자꾸 말로나 벽보를 가지고 하기보다 실지 적은 것이 모아서 많은 것이 된다는 걸 보여 주면 어떨가》하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얘들아 이것 봐 △

그래서 우리는 분단 동무들이 하루 동안 깎아 버린 연필 칼밥도 모으고 찢어 버린 종이 쪼각도 모아 적은 것이 모으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했지요.

◇ 학습 도구를 이 꽃잎 뜯듯이 없애 버린 다면◇

그러나 그것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후 우리들은 참 좋은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화나 창주나 동춘이는 우리 분단의 꽃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귀중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이였지요.

그리하여 우리는《식물의 성장과 잎의 역할》에 대한 실험도 할 겸 꽃나무 잎사귀도 하루에 한 잎씩 뜯으면 얼마 안가서 꽃나무까지 시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자고 한 것입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도 언젠가 분단의 꽃 나무로 잎사귀가 식물이 자라는 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실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한 일도 있어 우리는 곧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그루의 꽃나무는 날이 갈수록 한 잎 두 잎 잎사귀가 줄어 갔습니다. 그것은 분단 열성자들이 몰래 뜯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하루 아침 꽃에 물을 주려던 경화가 놀래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것 봐, 이 꽃이 왜 이렇게 시들어질가?》.

이 소리에 분단 동무들이 우르륵 꽃나무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을 너무 많이 줬다느니 거름이 모자란다느니 하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이것 봐 누가 잎을 뜯는 모양이야》. 경화의 말에 모두 눈이 둥그래졌습니다.창주와 동춘이도 맥 없이 잎 뜯기여 초라한 꽃나무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는 준비하였던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벽보에 우리는《말라가는 한 그루의 꽃나무》라는 제목으로 꽃잎을 뜯게 된 까닭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많던 잎사귀도 한 잎 두 잎 떨어지면 나중에는 꽃나무까지 시들게 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분단 모임을《두 그루의 꽃나무》라는 제목으로 가진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분단 동무들이 기다려 오던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가운데에 두 그루의 꽃나무를 놓고 둘러 앉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동무들은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들어 갑니다. 이 꽃나무에는 잎사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던 잎사귀도 하루 한 잎씩 뜯은 것이 오늘 와서는 모두 떨어지고 대만 남아 시들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학교의 물건이나 자기의 학습 도구를 이 꽃'잎 뜯듯이 없애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없어지겠어요.

우리가 한 잎도 뜯지 않은 이쪽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우리도 학교의 물건을 이 꽃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동무들이 앞을 다투어 말했습니다.

길녀는《저 꽃 나무 잎이 연필이라고 쳐 봐요.얼마나 많은 연필이 헛되이 없어졌겠어요. 우리가 학교의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의 물건은 모두 저 꽃과 같이 될거예요》.

경화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나의 버릇을 고쳐 주려고 이 꽃을 버린 것은 참 아까와요. 내 책상도 이 꽃처럼 상처를 입고 시들어 갔어요》라고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춘이도 창주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임이 거의 끝날 무렵 잠간 밖에 나가셨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예쁜 꽃이 핀 화분 하나를 들고 들어 오셨습니다.

《동무들이 잘못을 고치겠다니 참 반갑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사랑하던 꽃입니다. 시들어간 꽃대신 이것을 분단 동무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귀중히 거두세요. 책상도 학습장도 연필도 이 꽃처럼 사랑하세요》.

선생님은 경화에게 화분을 주었습니다. 경화 뿐만 아니라 동춘이도 창주도 계옥이도 분단의 전체 동무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절약 꽃》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 ×

좀 긴 이야기지만 분단 위원장의 말을 나는 재미 있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후 계옥이가 학습장 전람회에서 칭찬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동춘이와 창주가 동무들의 책상 걸상까지 고쳐 주어 벽보에 칭찬 받은 글까지 붙게 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화는 꽁다리가 된 연필도 만년필대에 꽂아 쓴다는 것이였어요.

량강도 후창 인민 학교 대 제 3분단에서

◇책상도 학습장도 연필도 이 꽃처럼 사랑하세요◇

신이 나는 이야기

◇최 화 규◇

영웅 아저씨를 맞이하는 명랑하고 씩씩한 노래·소리는 교실에 울려 퍼졌고 오색 테프와 꽃보라가 눈 내리듯 영웅 아저씨의 어깨에 내려 앉는다.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아저씨의 손목을 쥐겠다고 모여 들었다.

영웅 아저씨는 그들이 만든 영웅 연구 책을 펼쳐 보시기도 하고 분단 벽보도 보시였다.

드디여 오래 동안 기다렸고 듣고 싶던 리 태환 영웅의 전투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내가 영웅 칭호를 받기는 1952년 5월 7일이였습니다.

바로 그 해지요. 우리들은 남포 지구에서 신성한 조국의 하늘에 날아 드는 날강도들의 비행기를 사냥하라는 부대장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의 기쁨은 비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빨리 전투 임무를 맡겨 주었으

면 하고 지휘관을 원망까지 하던 판이였으니까요. 명령을 받은 나는 원쑤들의 비행기를 날아 드는 족족 떨구어 버릴 결심으로 〈놈들 나타나만 봐라〉하고 적기가 날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적 구라망 4대가 나타났습니다. 한 대의 적기도 놓치지 않을 욕심으로 나는 앞으로 달려 오는 놈도 쏘고 뒤로 오는 놈도 쏘고 이놈 저놈 다 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니 나는 결국 한 놈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날 적기를 사냥한 다른 전우들은 모두 기빼 야단들이였습니다. 나는 전우들의 얼굴을 보기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턱을 고이고 재미 있게 듣던 금자는 지난 날 자기도 산수 문제를 풀면서 이것 저것 풀어 보다 하나도 완전히 풀지 못한 것을 회상하고 싱긋 웃는 것이였다.

《나는 이날 전투에서 침착 대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놈들에게 한번 본때를 뵈여 주어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적기는 우리 진지 상공에는 나타나지 않고 먼발치로 빙빙 돌다가는 사라지군 하지 않겠어요.

적기를 바라 보면서도 싸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냥'군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고 또 싱거운 일이였어요.

〈어떻게 하면 적기를 우리 진지 상공에로 끌어 올 수 있을가?〉 여러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우리는 큰 나무로 고사포를 만들어 이곳 저곳에 놓기도 하고 마사진 자동차를 끌어다 놓기도 하여 보기도 어마어마한 큰 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놈들의 눈을 속이자는 것이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구라망 3대가 큰 진지를 발견하였다는 듯이 우리에게로 달려 드는 것이였습니다.

어렵고도 긴장된 순간이였습니다.

놈들은 내려 꽂히며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총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진지는 불'길에 휩싸였고 사방에서 폭탄이 튀고 탄알이 귀밑을 련방 스쳤습니다. 그 속에서 중기를 틀어 쥐고 련달아 날아 들며 꽂히는 적기를 묘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한 대를 묘준했습니다. 나의 중기 총구와 적기와는 일직선으로 맞았고 차츰 거리가 가까와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맞받아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적기는 연기를 뿜으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야!》하고 함성을 올리면서 박수를 쳤다.

《그때로부터 나는 14일 동안에 적 구라망 3대와 쌍발기 1대를 떨구었고 전우들과 같이 선천에서 9대의 적기를 떨구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였다.

영웅 아저씨는 전투 이야기를 끝내면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인민 군대에 들어 갔을 때에는 훈련을 잘못한다고 벽보에 난 일도 있습니다. 한번은 아침 기상에 늦는다고 났었고 아침 소집에 늦지 않겠다고 옷을 입은채 잠을 잔 것이 발견되여 또 벽보에 났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남보다 갑절 힘썼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좋지만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알고 고쳐 나가는 것도 그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을수록 영웅 아저씨의 이야기는 신이 났다.

2년 동안 아끼고 사랑하며 가꾸어 왔다는 양화 꽃이 붉게 핀 화분을 옥자로부터 받아 든 리 태환 영웅 아저씨는 감격되여 어린 시절에 복숭아꽃 살구꽃을 어루 만지며 불렀다는 민요를 한 곡조 부르셨다.

뒤'이어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노래와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개성 제2 중학교 대(인민반) 12분단에서

1

추위의 고비도 다 넘어선 2월이 왔다. 맵짠 바람이 뺨을 아리게 하던 아침 길이 인제는 목도리 없이 걸어도 좋았다.

무용복을 책과 함께 싸들고 총총 걸음으로 걸어 가고 있던 숙자는 학교 정문 옆 벽돌 담정 앞으로 무엇에 이끌리듯 다가갔다.

아이들이 열심히 들여다 보는 거기로 숙자도 눈을 옮겨 갔다. 울긋불긋한 《포스타》가 붙어 있었다.

《숙자야! 참 멋지지?》.

아이들 속에서 보비의 목소리가 났다.

숙자는 그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일뿐 《포스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숙자의 몹시 긴장한 얼굴을 유심히 지켜 보던 보비는

《얘 봐! 벙어리가 됐나?!》.

이렇게 롱을 걸며 숙자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도 숙자는 눈 한번 깜짝이지 않고 서 있었다. 보비는 의심쩍은 감정으로 숙자를 물끄럼이 바라보았다.

《보비 넌 모르지? 저기 첫 머리에 씌인 무용가 김 옥주가 내 선생이야》.

한참만에 숙자의 다문 입이 열렸다.

《학교 선생이야?》.

자기에게 무슨 나쁜 감정이라도 품었는가 하고 의심까지 가졌던 보비의 마음은 개여졌다.

《그런게 아니구 평양 있을 때 석달 동안 우리 학교에 와서 무용을 배워 준 분이야! 내가 직접 배웠단다》.

숙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뽐을 냈다.

《그 분은 유명한 무용가야 쏘련, 중국 할 것 없이 다 다녀 왔단다. 그 분은 날 동생처럼 사랑해 준다. 꼭 만나 봐야겠어》.

숙자의 자랑은 컸다. 그것은 무용가 김 옥주의 자랑이기보다는 그런 분에게서 배웠다는 자기의 자랑이 더 컸다.

《오라! 그래서 네가 무용을 썩 잘하댔구나!》.

같은 무용 써클원인 보비는 부러운 듯 눈에 웃음을 담으며 감탄했다.

《아버지가 군으로 이동만 안 됐더면 난 벌써 무용 학교에 들어 갔을거야 막 분해 죽겠어》.

《또 무용 학교 이야기냐! 초중도 못 졸업하구 어떻게 간다구 그러니?》.

《흥? 넌 날 그렇게 아니? 모란봉 극장, 넌 못 봤지? 참 굉장하다. 그 무대에서 춤 춘게 바루 나야 김 숙자! 좀 알겠어?》.

숙자는 보비를 촌떠기로 깔보고 하는 말이였지만 보비는 그런 감정을 느낄 대신 자꾸만 부러웠고 숙자가 전에 없이 돋보였다.

《그 분이 춤 추는걸 봤으면 좋겠네!》. 보비는 몹시 부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가 보려무나! 2•8절 축하 공연 오지 않았니 우리 군에—》.

《얘 봐? 누군 생각 없이 말하는 줄 알어? 넌 무용복을 싸 들고도 잊었구나》.

《……………………》.

까불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숙자도 그만 말문이 막혔다. 오늘 저녁에 부근 부대에 위안 공연을 간다는 것을 깜짝 잊고 말했기 때문이다.

교문을 들어 서기까지 잠잠했던 숙자는 《난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야》.

불쑥 이런 말을 해서 보비를 놀래웠다. 검은 눈의 긴 눈섭을 섬빽이며 숙자의 새침해진 얼굴을 덤덤히 바라보던 보비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말에 감정이 났니?》 하고 물었다.

《그런게 아니야. 너두 알겠구나 내 희망을! 이번 기회에 옥주 선생을 따라 가야겠어. 이러구 있단 무용 학교가 늦어만 지겠거든!》.

얼굴에 긴장한 빛을 띄우고 심각히 하는 숙자의 말에 보비도 얼떨떨해졌다.

《쓸데 없는 생각 말구 오늘 군대 구락부에 나갈 준비나 잘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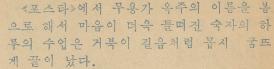
머리 속에 딴 생각이 맴돌고 있는 숙자의 귀에는 보비의 말이 벌떼가 웅웅 거리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교실로 향한 숙자의 마음은 벌써 무용 학교 학생이 되였고 예술 극장에도 가서 옥주 선생과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멋지게 돌고 있었다.

아니 벌써 무용 학교를 나와 모란봉 극장의 호화로운 무대 우에서 숱한 관중의 박수 갈채를 받아가며 춤을 추는 자기를 숙자는 흐뭇한 심정으로 그려 보는 것이였다.

◇분명한가? 옥주 선생이◇

2

《포스타》에서 무용가 옥주의 이름을 봄으로 해서 마음이 더욱 들떠진 숙자의 하루의 수업은 거북이 걸음처럼 몹시 굼뜨게 끝이 났다.

숙자는 창 밖에서 부르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창쪽을 힐끔힐끔 바라다 보면서 분주히 책보를 쌌다.

그리운 무용 선생을 만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생각을 하니 한 초도 지체 말고 누가 보기 전에 급히 달아 나야 했다. 바삐 교실을 빠져 나가려는데

《숙자야! 넌 당번 아니냐?》 하고 룡녀가 소리쳤다.

《가만 있어. 연예대가 곧 떠난대—》.

숙자는 이렇게 한 마디 탁 던지면서 복도로 뛰여 나갔다.

《얘얘 무용이나 한다구 너무 까불지 말아》.

룡녀의 볼 부은 소리가 빽소니를 치는 숙자의 귀'등을 때렸으나 그는 모른척 하고 쏜살 같이 출입구를 빠져 나갔다.

현관 쪽을 보니 구락부로 아이들을 태워갈 트럭이 와 기다리고 있었고 써클원들이 모이고 있었다.

숙자는 정문으로 나갈 생각을 그만두고 문도 없는 울타리 쇠줄 구멍으로 간신히 빠져 나왔다.

학교 앞 재'등을 단숨에 뛰여 넘었다.

《숙자 넌 구락부에 안 가니?》.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물으면 《몸이 말째서 가—》 하고 서슴 없이 거짓 말로 넘기군 했다.

《얘! 네가 빠지면 무용이 시시해지겠

구나!》.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걱정까지 했다.

《괜찮아 보비 같은 선수가 있지 않니?》

숙자는 슬쩍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들께 안심을 주며 될 수 있는대로 아이들을 피하면서 읍 영화관으로 달려 갔다.

2•8절을 경축하는 표어를 쓴 프랑카드가 영화관 마당에 걸려 국기, 오색기들과 함께 바람에 나붓기고 있는데 군인,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문이 미여지게 들어가고 있었다.

숙자는 초대권도 없이 어른들 틈에 척 끼여 섰다.

《얘! 넌 뭣하러 왔어? 어른들만 초대하는 날인 줄 모르니?》.

문직이 아저씨가 숙자를 막아서며 못들어 간다고 말했다.

《구경이 목적이 아니예요. 예술대에 꼭 만날 분이 계셔요》.

숙자는 얼굴이 막 빨개져 가지고 밀치다 싶이 막아선 아저씨를 비켜 놓으면서 영화관 안으로 쑥 들어 갔다.

아저씨도 바쁜 통이라 더 말이 없었다.

방안은 눈부시게 장식되였다. 줄줄이 늘이운 만국기가 휘황한 전등 불'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다.

숙자는 자리를 골라 보다가 어느 좀 뚱뚱한 할머니 옆에 그의 손녀처럼 꼭 끼였다.

《학교는 필하구 왔니?》.

《네!》.

《애들은 안 들여 보내든데?》.

《전 예술대에 아는 선생을 만나 보러 왔어요》.

《응! 편양 살댔니?》.

《네! 작년에 여기 왔어요》.

《지금이야 만나겠니? 곧 시작할텐데》.

《그럼 좀 있다 만나지요》.

할머니의 부드럽고 다정한 마음씨를 느끼면서 숙자는 이제 막이 열릴 무대에만 정신이 가고 있었다.

바루 이 때 영화관 앞길로 연예대 동무들을 태운 트럭이 지나가는지 《소년단 행진곡》이 창을 통해 들려 왔다.

숙자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솟구쳐 창밖을 내다 보았다. 트럭에 가득탄 연예대원들은 꽃바구니에 담긴 꽃 송이들처럼 예뻐 보였다.

소년단 대 기'발을 쥐고 섰는 보비의 웃는 얼굴이 숙자의 눈 앞을 획 스쳐갔다.

보비에게 발견이나 된듯 숙자는 목을 움츠리며 도로 자리에 주저 앉았다.

《너 왜 가만 있질 못하구 부스럭거리니?》.

조금 거치러워지는 할머니의 음성에 숙자는 저으기 무안을 느끼며 잠자코 앉아 있었다.

이윽고 막이 열리고 노래, 춤, 바라이데가 련이어 진행되여 나갔다. 무용가 김 옥주가 나타났다. 파란색 조명 불'빛 속에서 잠자리 날개를 펼치고 춤을 추는 옥주는 비할 수 없이 아름다왔다.

(분명한가? 옥주 선생이?)

숙자는 제 눈을 의심하면서 뚫어지게 무대 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긋나긋 나비처럼 사지를 놀리다가 우산처럼 펼쳐진 치마가 뱅글뱅글 돌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요란한 박수와 갈채를 한 몸에 받으며 무대를 물러 가는 옥주를 얼빠진 눈으로 멍청 지켜 보던 숙자는 무엇에 놀란 아이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뒤'방으로 달려 갔다.

◇ 선생님! 저를 무용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

《이게 누구야! 숙자 아니야?'》.

무용복을 벗고 있던 옥주 선생이 그리웠던 동생을 맞는 기쁨으로 두팔을 쭉 벌려 숙자를 껴안아 주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응! 잘 있었어. 넌 여기 와 사니?》.

《네! 작년에 왔어요》.

《그래 공부도 잘 하구 무용도 계속 하니? 평양 있을 때도 말했지만 넌 꼭 무용가가 돼야 한다. 그럴 걸 난 믿어》.

공부란 말보다도 무용가란 말이 숙자의 귀를 번쩍 뜨게 했다.

《재미 있었지! 작년 여름!》.

옥주 선생은 작년 8•15를 앞두고 녀고중에 와서 석달 동안 무용 써클을 지도한 그 때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저는 선생님께 더 배우고 싶어요》.

《또 기회가 있겠지!》.

숙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탁 터놓지 못했기 때문에 옥주 선생은 이렇게 미지근한 대답을 주었다.

옥주 선생의 차례가 또 온 모양으로 그는 다른 옷을 급히 바꾸어 입으면서

《숙자야! 다시 만나자! 내 차례가 또 계속 있으니까》.

하고 말했다.

숙자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자리를 떠날 마음은 없었다.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기어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를 무용 학교에 데려가 주세요. 꼭 이번에요》.

옥주 선생은 채우려던 옷 단추에서 손가락을 딱 멈추고 잠시 눈이 둥그래 있었다.

《아니 네가? 졸업도 않구?》.

옥주 선생의 놀라는 표정에 숙자는 더욱 놀랬다. 꼭 들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졸업 안해도 좋아요. 선생님처럼 무용가만 되면 좋아요》.

숙자는 저도 모르게 대담해졌다.

《들어봐! 나도 너를 무용가로 만드는 데는 찬성 아니냐! 그렇지만 순서 있게 해야지. 공연히 마음이 들떠서 서둘다는 실패하거든!》.

옥주 선생은 옷을 다 갈아 입고 숙자의 등을 가만가만 두드리면서 알아 듣도록

최우등생 박 금자 동무

박 금자 동무는 국어'과 공부를 퍽 싫어한 동무였습니다.

쉬운 내용의 글도 줄줄 내리 읽지 못한 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읽고도 그 내용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까닭이지요.

2학년때 분단에서는 금자에게 독서에 대한 위임을 주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분단 동무들에게 알려 주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읽은 책 이야기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싫은 것도 참아 가면서 읽었지만 차차 내용도 알고 재미가 들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게까지 되였답니다. 한번 읽어 내용을 모를때에는 다시 읽군 했습니다. 그래도 모를 것은 동무들이나 선생님에게 묻군했습니다.

3학년에 올라와서 그는 125권의 책을 읽고 분단 동무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독서하는 동안 그의 국어 공부는 퍽 늘어 갔고 자연'과와 산수'과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읽고 그 내용을 쉬이 알 수 있고 또 풀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2학년 때까지 락후생이던 그는 최우등의 성적으로 4학년에 올라갔으며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 받았습니다. 최우등생이며 분단 위원장인 박 금자 동무는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의 등록 표칭》을 받았습니다.

황북 송림 제2 인민 학교대 위원장 고 현권

◇ 5리 남짓 한 《샘'골》까지 단숨에 뛰여 갈 것을 숙자는 결심했다. ◇

차근차근 타일러 주었다.

그러나 그 타이름은 숙자를 만족케 할 수는 없었다. 생각하고 믿었던 일이 마치 쌓았던 담이 무너 내리는 것 같았다. 마음 서운할 뿐이였다.

《숙자는 생각이 잘못됐어! 훌륭한 무용가가 되려면 공부를 착실히 해야 해. 학교의 규률도 잘 지키구 소년단 사업에도 열성을 다 하구 알겠어? 그럼 밤에 려관으로 와》.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섰는 숙자에게 한번 더 이렇게 다짐을 하며 옥주 선생은 자기의 순번을 따라 무대로 또 올라갔다.

숙자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다. 옥주 선생이 학과에 태공하고 규률이 해이해진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듯 느끼여졌기 때문이였다.

3

영화관을 불쑥 뛰여 나온 숙자는 텡 빈 마당에 말뚝처럼 우뚝 서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차차로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둥너머 협동 조합 정미소의 기계 도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 왔다. 거리의 악기점에서 멋진 음악도 들려 왔다.

이 흥성스런 소리들은 확실이 흐리멍청해졌던 숙자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다.

(경솔했다!)

숙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지금 쯤은 써클 동무들이 구락부 무대에 출연하고 있겠는데!)

숙자는 동무들께로 마음이 이끌려 갔다.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말했을 때 검은 눈이 둥그래서 놀라던 보비의 정다운 얼굴이 숙자의 눈 앞에 안겨 왔다.

(동무들은 기다릴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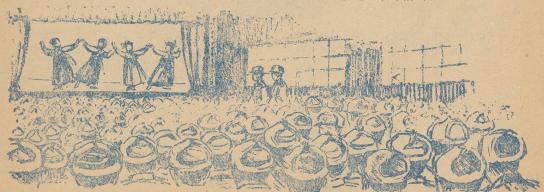
숙자의 눈은 책보로 갔다. 책 우로 비죽이 나온 무용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용 학교에 갈 생각에 자기의 할 일을 잊었던 때문이다.

영화관 안에서 요란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구락부에서 숙자를 나오라고 부르는 박수 소리로 들렸다.

숙자는 그 자리에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옥주 선생은 래일 아침 만나지!)

숙자는 입술을 꾹 다물며 무슨 결심을 하고 나서 무용복이 든 책보를 옆구리에다 단단히 끼고 연예대를 실은 트럭이 지나간 신작로로 성큼 내려서 활개쳐 걷기 시작했다.

군대 구락부에 모여 자기들의 명절을 마음껏 즐길 군대들과 군대의 명절을 축하하러 간 동무들이 자기를 기뻐 맞아 줄 것을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5리 남짓한 《샘'골》까지 단숨에 뛰여갈 것을 숙자는 결심했던 것이였다.

◇ 지금 쯤은 써클 동무들이 구락부 무대에 출연하고 있겠는데 ◇

우리 녀학생들은 눈덩이를 빚어주마

☆ 최 옥 선 ☆

새학년도가 시작되면서 7분단은 새로 조직되였습니다. 열성자들도 새로 선거했거니와 다른 분단에서 공부하던 남학생들도 같이 공부하게 되였고 먼곳에서 이사와 새로 입학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동무들을 처음에 맞았을 때는 공부 시간에 새로 배운 문제들을 들고 서로 토론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조용히 하면서 퍽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날이 지나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몇몇 남학생들은 가끔 녀학생들의 놀음터에 와 방해를 하군 했습니다.

어느 날 녀학생들이 고무줄 넘기에 한참 신이 났는데 홍성이와 몇몇 남학생들이 뛰여 들어 고무 줄을 끊어 놓고 녀학생들의 《오자미》를 발로 밟아 터뜨려 주었습니다.

다른 녀학생들도 야단을 쳤지만 견대는 홍성이에게 막 대들기까지 했답니다.

홍성이는 《뭐야, 또》 하고 소리치며 오히려 주먹을 불숙불숙 내밀었습니다.

이튿날 방과후 분단에선 피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홍성이는 진을 바꿀 때 일부러 뽈을 힘껏 던져 어제 분풀이로 견대를 때렸습니다.

녀학생들은 《왜 때리니?》 하고 대들고 남학생들은 《모르고 그랬는데 뭘뭘》 하며 서로 편을 들며 싸웠습니다.

이렇게 돼서 피구 시합은 끝내지도 못하고 모두 교실로 우루루 밀려 들어와 집으로 갈 차비들을 하였습니다.

녀학생들이 먼저 교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달려 나와 못간다고 문을 막아 서는 것이였습니다.

《오늘 청소는 너희들이 또 해야 돼, 어제 너희가 청소 잘 못해서 우리 분단이 지적 받았으니까》

하고 야단했습니다. 사실 청소 당번은 남학생만으로 된 3반의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공연히 구실을 부쳐가지고 야단을 하다 그냥 달아났습니다. 녀학생들도 자기 차례가 아니라고 그냥 갔습니다. 이튿날 일직 선생한테 지적 받은 분단 동무들은 서로 남자들의 탓이야, 녀자들의 탓이야 하며 싸우는 것이였습니다. 7분단 동무들의 사이는 점점 벌어져 갔습니다.

오늘도 운동장의 눈 쓰는 작업을 끝내고 교실에 들어와 왁작 떠들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분단이 6분단한테 지구 끝찌까지 한건 녀자들 때문이야. 알기나 하구들 떠드니》 남학생들이 가슴을 불숙 불숙 내밀며 소리 치는데 《너희들 탓이지 뭐야》

◇홍성이는 고무 줄을 끊어 가지고 달아 났습니다◇

◇홍성이는 오히려 주먹을 불숙 불숙 내 밀었습니다◇

하며 녀학생들도 대들었습니다.

《글쎄 안만해두 우리 분단은 녀자들이 많아서 말썽이야》 늘 능청맞게 놀기 잘하는 도성이가 말끝을 길게 뽑으며 웨쳤습니다.

《〈계집애〉가 뭘 다 그래…》하고 녀학생들 속에서 도성의 별명을 불렀습니다.

도성이가 어느 날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할때 자기 형을 우리 오빠라고 헛대답을 했다고 해서 녀학생들은 《계집애》라고 그의 별명을 지은 것입니다.

뒤'이어 남학생들 속에서도 《로친네》, 《녀구리》, 《말새끼》라고 녀학생들의 별명을 맞받아 불러 댔습니다

이때 교실 문이 드르릉 하고 열리며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정신 없이 싸우던 분단 동무들은 《야야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어!》라고 수군거리며 제각기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무들은 서로 슬금슬금 바라보며 《난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라는 듯 시침이를 뚝 따고 선생님의 움직임만 살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교단에 오르시더니 분단 위원장에게 《오늘 선생님은 군에 회의 갔다 오느라고 일을 같이 못했지만 운동장 눈 쓰는 일들을 잘 했겠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분단 위원장인 성덕이는 안타깝던 마음에 어느 일부터 먼저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말 머리를 못 고르는 것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글쎄 우리 분단 동무들은 일을 서로 방해하면서 싸우기만 했습니다. 우리 분단 만이 조금 전까지 운동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6 분단 위원장은 나더러 만세만세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성덕의 얼굴은 분이 치민 듯 활끈 붉어 올랐습니다.

선생님은 왜 서로 방해만 하게 되였는가를 성덕이에게 계속 물으셨습니다.

학습이 끝나자 곧 분단 별로 경쟁하면서 눈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7 분단과 경쟁해 오던 6 분단 동무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7 분단 남학생들은 《너희들 하군 같이 안할테다》 하며 금을 그어 놓고 녀학생들과 갈라 쓸어 나갔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 남학생들은 눈 덩어리를 빚어 서로 때리기도 하고 눈사람을 만들면서 장난에 빠져 녀학생들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였습니다.

그제야 남학생들은 애를 쓰며 따르려다 나중에는 급해 맞아 들'것에 담아 가지고 가던 눈을 녀학생들이 깨끗이 쓸어 놓은 자리에다 일부러 쏟아 버리고 달아 나군 했습니다. 녀학생들은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며 싸우다 못해 나중에는 녀학생들도 눈을 담아다 남학생들이 쓸어 놓은 자리에다 쏟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싸우다 보니까 7 분단만이 나중까지 일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분단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선생님은 머리를 끄덕이시며 무엇을 생각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힘을 얻은 인순이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일어나서 《선생님! 남자 동무들은 오늘 뿐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는 데 치국이가 말을 가로 채며 《선생님! 우리 분단은 말썽 많은 녀학생들이 많아서 졌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단 위원장은 안타까운 듯 또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동무들은 저렇게 말 다툼만 하구 우리 분단이 끝찌한데 대해선 분해하지 않아서 난 안타까와 못견디겠습니다. 우린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 분단과 경쟁하는 6 분단한텐 꼭 이겨야 하겠어요. 6분단이 뽐내는건 못 보겠어요. 오늘 저녁 우린 눈싸움이라두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성덕이는 선생님 얼굴에서 눈을 돌리지 않은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학생들은 녀학생들이 쓸어 놓는 자리에다 눈을 쏟아 놓았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잘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시며 약간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성덕이가 분단의 영예를 위해 안타까와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 떠드는 것처럼 동무들을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분단을 위

우리학교대의 자랑 — 우리의 공작실

우리의 공작실은 날마다 어린 기술자들로 가득 차군 합니다.

지금 공작실에서는 선반, 단조, 함석, 목공, 토공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누인 크루쇼크에서 저마끔 자기들의 재간 있는 솜씨로 여러가지 실험 기구들과 공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선반 크루쇼크이지요.

어떻게 그 어려운 선반기를 다룰 수 있게 되였는가구요? 물론 우리가 선반기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처음엔 우리도 철공 크루쇼크에서 야장'간을 만들고 철사로 못을 만들어 목공부에 넘겨 주는 간단한 일로부터 시작했는데 차차 불갈구리와 부삽들도 만들어 내게 되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큰 자신과 희망을 갖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철공 크루쇼크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교의 후원 단체로 되여 있는 남포 제련소를 견학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견학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공무부 아저씨들이 멋지게 다루는 선반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였답니다.

그후 우리는 제련소 공무부를 자주 찾아 가게 되였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자 아저씨들은 우리에게 선반기에 대해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반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며 실지 실습도 해 보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난 해 12월 20일에 제련소에서는 우리의 공작실에 선반기와 볼반을 한 대씩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작실에서 크루쇼크 지도자 김 종택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직 서툰 솜씨지만 우리의 손으로 직접 보드와 낫트를 깎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음에 깎아낸 보드와 낫트는 완전한 것으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방학을 리용하여 우리는 제련소의 기술자 아저씨들을 학교에 모셔다가 계산자를 쓰는 방법이며 바이트(쇠를 깎아 내는 끌)를 정확히 대이는 방법으로부터 한돌을 움직이는 방법들을 배우고 이제는 선반기의 원리도 알게 되였으며 7부 보드까지 깎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남포 제4중학교 대 위원장 림 서록

해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는 우리 분단이 다른 분단과 어떤 일을 경쟁한다고 해도 열번이면 열번 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교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교단에서 내려 서시며 《우리 분단이 오늘 눈 쓰는 일에서 제일 뒤떨어진 것이 남학생들은 치국이가 말한 것처럼 녀학생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분단보다 녀학생들이 더 많은 6 분단에선 어떻게 우리 분단보다 앞설 수 있었겠습니까… 또 남학생들이 눈을 버려 준다고 해서 분단을 위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행동한 녀학생들도 좋은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런 행동은 량쪽이 다 분단 사업을 뒤떨어지게 하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무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분단의 리익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분단에서 해야 할 일들을 겸해서 이야기하시고 교실에서 나가셨습니다.

× ×

교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한참 잠잠하던 가운데서

《그것 봐 누구 하나 잘한 것 있어? 모두가 잘못하지 않았니…?》하며 대 위원인 부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남학생들이 자꾸 애메기니까 안타까와 그랬지 뭐. 남학생들이 애메기지만 않으면 우린 정말 좋겠어!》하고 견대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더러 〈계집애〉라구만 부르지 말려므나 그럼 난 아무 말도 안할테다》.

라고 동성이가 불숙 말하자 모두가 하하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분단 위원장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얘들아 우린 정말 쓸 데 없는 일 가지구 장난 삼아 싸우고 있었거든. 분단을 위하는 일에서 싸운다면 모르지만 정말 우수웠어… 우리 그러지들 말구 뽐내는 6 분단을 지워 놓구 말자, 오늘 눈 싸움이라두 해서 말이야 응…》하며 동무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녀학생들은 눈뎅어리를 빚어 날라 주마》.

《그래 그래! 이제 빨리 6 분단 동무들이 집에 가기 전에 내기를 걸자…》.

7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한 사람 같이 책가방을 메며 들며 서둘어 뛰여 나왔습니다.

《6 분단 동무들아! 눈 싸움하자》라고 웨치는 소리는 온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북 삭주 제3 중학교 대에서

◇6분단 동무들아! 눈 싸움하자 ◇

(전호에서 계속)

(13) 창고신이 다시 쥐더러 다조아 물으니 쥐는 빳빳한 수염을 까불거리며 여우와 살가지, 고슴도치와 수달이, 노루와 토끼, 사슴과 메'돼지, 양과 염소, 그리고 원숭이와 코끼리까지 불러 대였습니다. 원숭이는—나무 우로 거닐며 파실을 따먹고 사는 제가 그 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네까!

코끼리는—나는 뭇짐승의 왕이올시다. 고 놈의 쥐가 내 코'구멍으로 들어올가바 놈과는 아야 맞서지도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4) 쥐는 또 이리와 곰, 노새와 나귀 그리고 소와 말을 찍어 댔습니다. 이들도 모두 심문을 받았는데 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씩 웃고 말했습니다.

—힘껏 밭을 갈아 백성들을 먹이는 제가 나라 창고를 엿보다니요?…

말도 하늘을 쳐다보며 히힝거렸습니다. —쥐새끼가 나를 저의 패거리로 여기니 입이 써서 말이 안 나옵니다.

(15) 짐승들의 말을 듣고 보니 창고신은 더욱 화가 치밀어 한바탕 쥐에게 판장질을 했습니다. 쥐는 얼혼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또한 꾀를 짜내여 사자와 범과 기린 그리고 세상에 있지도 않는 룡까지 일러 바쳤습니다.

사자는—고런 요망한 미물이 수풀 속의 왕인 내 이름을 함부루 부르다니!…

범도—험한 산령이 내 집이고 온갖 짐승이 내 밥인데 내가 고 놈을 추겨서 쌀을 훔쳐요?!… 라고들 웨쳐 울렸습니다.

(16) 창고신은 그만 낯을 붉히고 노발 대발했습니다. —너 요놈! 도끼로 네 목을 짜르고 칼로 네 배를 잘라 치우리라! 어서 똑바루 대지 못할테냐!

쥐는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뉘우치듯 목멘 소리로 지절거렸습니다.

—새가 죽을 적에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에 그 말이 착하다 하였으니 이 늙은 것이 비록 사람은 아니오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 한번 더 들어 줍소서…

(17) 이렇게 간사를 부려서 창고신의 마음을 늦궈 놓은 다음 쥐는 애무한 벌레들과 날짐승들에 죄를 넘겨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달팽이와 개미는 그럴듯이 대답했습니다.

달팽이—저는 본시 눅눅한 돌과 풀 숲에 깃들어 살며 침으로 몸을 움직이고 이끼를 핥아 먹을 뿐이외다. 쥐가 뚫으는 담벽에 침을 발라 주다니요?…

개미—저희들은 보잘 것 없는 미충이오나 부지런하고 규률있기로 이름이 높습니다. 구멍 판 흙을 날라 주었다니 이게 무슨 창피오니까?!

(18) 다음에 쥐는 반디'불과 수탉이 자기를 구해 주었다고 집어 대였습니다.

반디'불이 끌려 와서 공술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학생의 밤 공부를 도와준 적은 있어도 도적을 도와준 일은 한 번도 없잡네다…

수탉이 끌려 와서 구국거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는 것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지 저런 도적놈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올시다!

(19) 쥐는 다시 허튼 수작을 늘어 놓아 알고 있는 새라는 새는 다 불러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공작과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봉황새까지를 련방 주어대였습니다.

학은 길게 한숨을 뿜으면서 말했습니다. —신선의 벗으로서 구름 우에 노니는 몸이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이야…

공작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구슬과 돌이 어찌 섞이오며 아렸다운 이 몸과 더러운 저 놈이 어찌 사귀오리까?

(20) 창고신은 고개를 주억주억하고 나서 다시 무섭게 쥐를 욱박질렀습니다.

쥐는 다시 손을 부비며 북해에 있다는 대붕새와 동해의 고래를 끌어 대였습니다. 그러나 대붕과 고래는 너무 크고 세차서 데려 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신은 몸소 바람 수레에 구름 말을 메워 타고 수 천명 신하들과 함께 북해와 동해로 찾아가서 그들을 심문하기로 하였습니다.

(21) 대붕새는 몸을 물 속에 잠근채 제주도 보다도 큰 입만을 내놓고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개로 하늘을 덮는 내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슈?… 허허허…

고래는 꼬리를 쳐서 폭풍을 일으키면서 고함쳤습니다.

—온 바다'물을 단번에 들이키는 내가 고따위 미물과 상관이 있단 말이요?

(22) 도리여 큰 욕을 본 창고신은 돌아 오는 서슬로 쥐를 족쳐댔습니다.

반 죽음이 된 쥐는 또 피를 짜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 저것 되는 대로 주어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기 죄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신은 드디여 쇠줄로 쥐를 묶어 기둥에 달아매게 한 다음 주둥이를 짜르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오리가리 찢어서 기름 가마에 집어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쥐는 제법 눈물을 흘리면서《마지막 말》을 허락해 달라고 청을 대였습니다.

창고신이《무슨 말이냐?》고 꾸짖었더니 쥐는 마지막 기를 써서 호소나 하듯이 이렇게 늘어 놓았습니다.

—인자하신 창고신이여! 지금껏 제가 아뢰여 바친 놈들이 크나 적으나 모두다 저와 같이 죄를 짓고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품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필 이 놈만을 처벌하려 하나이까? 죽이려면 모조리 다 죽여 주시옵소사!…

(23) 창고신은 어리둥절하였다가 머리가 팽팽 도는 바람에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개와 고양이가 얄밉다는 듯 수염을 곤두고 쥐를 노렸습니다.

지금까지 쥐에게 몽땅 속히였다는 것을 깨달은 창고신은 벼락 령을 내렸습니다.

—대'돌을 들어서 조 놈의 이'발을 쳐부셔라!

그러자 앙큼한 쥐는 도리여 악을 쓰고 대들었습니다.

—원통하외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하나님의 분부 대로 나를 추겨서 도적질을 시켰는데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24) 이 소리를 들은 창고신은 넋이 빠진 듯 손'벽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뇌까렸습니다.

—참말 하나님도 왜 저런 놈을 만드시여 세상에 화를 끼치고 또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지?… 이제 허튼 수작이 하나님에게 미쳤으니 나로서는 할 도리가 없구나…

이리하여 창고신은 재판 서류를 갖춰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올라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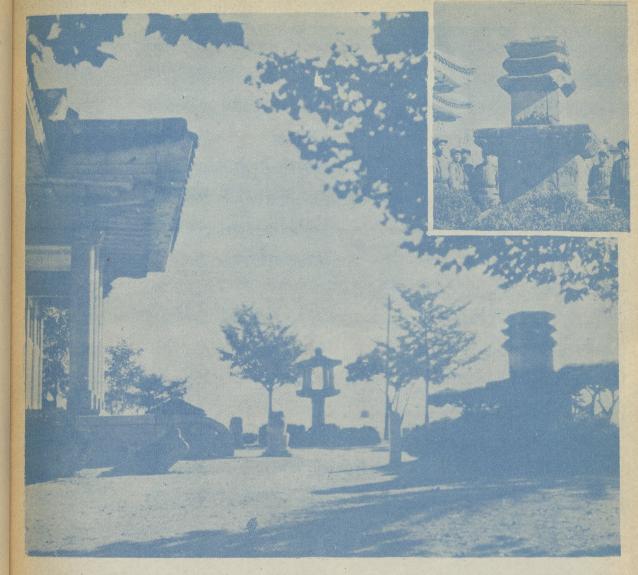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문건을 뒤적이더니 곧 결재를 내렸습니다.

—허 고이한 놈 엉뚱한 시비를 걸어서 내 이름을 더럽힌 그 놈을 당장 내려가서 엄벌에 처할지어다! 그리고 사나운 뭇짐승과 벌레들을 시켜서 그 놈의 씨가리를 없애 버려라!

(25) 창고신은 바빠 내려와 창고 앞에서 쥐를 처단하고 옥 문들을 열어 제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곧바로 쥐구멍들을 찾아 가서 쥐의 떼거리들을 모조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비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한탄하였답니다.

—불은 당장에 꺼버리지 않으면 번지는 법이요, 재판은 즉시 처결하지 않으면 번그러워지는 법이니, 창고신은 일을 잘한 것은 아니로다. 도대체 나라 것을 해치고 남의 것을 훔치는 놈이 어찌 한날 늙은 쥐 뿐이랴!! (끝)

강 감찬 장군의 념원

개성 력사 박물관 뜰 앞에는 옛날에 세운 탑 하나가 서 있다.

이 탑은 리조 정조 (1777~1800년) 때에 개성에 있는 만월대 홍국사(절간 이름) 옛터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석탑에는 우리 나라 고려 시대의 유명한 애국자인 강 감찬 장군의 이름과 간단한 글'구가 새겨져 있다.

이 글'구는 《…평장사 벼슬한 강 감찬은 나라가 길이 태평하고 먼 데나 가까운 데가 항상 평안할 것을 원하여 이 탑을 삼가 쌓는다》라는 내용이다.

이 글 끝에는 이 탑을 세운 때가 적혀 있는 데 그것을 보면 1021년 5월로 되여 있다. 바로 강 감찬 장군이 거란 침략 군대를 무찔러 구주(구성)에서 큰 승리를 한 후 3년째 되는 해이다.

이 석탑에서도 우리는 항상 나라가 평안할 것을 념원하여 온 장군의 애국심을 잘 알 수 있다.

사진은 개성 력사 박물관과 그 앞에 있는 석탑………리 창규 촬영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2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7년 2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2 호 총(89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7—40352 값 25 원 65,000부 발행